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3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통53).하늘에 가득 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자연만물에 저마다의 색깔을 허락하셔서 다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깔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성숙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날씨만큼이나 더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시원한 쉼을 허락하여주십시오. 급한 일을 하느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이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맑고 잔잔한 호수가 하늘을 담아내듯이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져서 주님을 담아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5. 시편 8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최희영 선생 II. 장영숙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25(통217).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함께
성경봉독	I. 약 4:1-8 이수정 학생 II. 사 41:8-16 윤미경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질투하는 하나님 손성현전도사 II. 지렁이들의 하나님 김재흥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427(통516). 맘 가난한 사람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 함 께 : 아멘. 강한 자들의 삶의 자리를 걸눈질하며 그들처럼 되기를 소망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매순간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말씀 : 이성운 전도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임수연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준우 목사	박경선 집사 김재흥 목사	하진채 학생 박두석 집사

6월	영접위원	방문성 하현철 윤성종 박효선 허정윤 김윤정
	헌금위원	한상익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종이 되는 길

권위를 행사하고 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군대형이 있는가 하면 산업형이 있고 공동체형도 있다. 장군의 목표는 승리에 있고, 공장 관리인의 목표는 이윤에 있다. 그러나 공동체 지도자의 목표는 개개인이 사랑과 진리 면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중 사명을 안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시선과 공동체의 시선을 본질적인 것, 즉 공동체의 기본 목적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들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가 부차적이며 임의적인 사소한 논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르슈에 있는 책임자들은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참된 행복’의 정신 속에서 신체 장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부단히 일깨워 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 기도 공동체의 경우 구성원은 일에 대한 요구가 기도에 대한 요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과 항상 밀접히 접할 수 있도록 만들 사명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상호 신뢰와 평화와 기쁨의 풍토를 창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각 사람과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서로 신뢰하도록 이끌 것이다. 인간이란 신뢰를 토대로 이룩된 평온한 주변 환경 속에서 가장 훌륭하게 성장하는 법이다. 경쟁과 질시와 의혹이 팽배하고 사람이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곳에서는 공동체도, 성장도, 증거하는 삶도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이 다르면 권위를 행사하는 방법 역시 그들의 기질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지도자들 중에는 창조력이 뛰어나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안목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최전선에 나가 사람을 지도한다. 그런가 하면 비교적 부끄러움을 타고 겸손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 가운데서 함께 걸으며 탁월한 조정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기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상사가 되기 이전에 종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입증하려고 책임직을 떠맡은 사람은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이거나, 자기가 정상의 위치에 서 있어야 흡족해하고, 아니면 명예나 특권을 스스로 추구하려 드는 까닭에 언제나 책임을 그르치게 마련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종이 되는 일이다.

일부 공동체의 경우 통솔 능력이나 위세를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지도자란 그들의 천부적 자질을 바탕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된다. 지도자는 자기 선익보다 공동체의 선익을 앞세우는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유능'하지만 자기에게 열중하는 사람보다는 설령 부끄러움을 타고 명령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 쪽이 훨씬 낫다.

책임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하느님의 사명으로 보고 그분의 힘과 성령의 선물에 몸을 맡기는 이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잘것 없고 무능하게 여길 테지만, 그래도 언제나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겸허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신임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안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공동체가 감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찾고 있지 않다는 것, 그들의 시야가 그들 자신의 문제로 인해 가리워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때가 오면 그들이 흔연히 물러서리라는 사실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책임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질은 공동체 구성원 전원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성장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이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은 책임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 하는지, 아니면 그저 재미만 찾는지 이내 알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는 권위의 표본은 곧 예수님이시다.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던 예수님, 당신 양떼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착한 목자이시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처신하는 고용된 사람과는 다른 것이다.

자 유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 김남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시내 양재성 임미심 김철수 유영남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훈동
 유경순 박병구 김정애 박창운 허정윤 이봉옥 임주빈 최현옥 홍순구
 안홍숙 김정애

월정헌금:

고속이 박석희 조항미 박준규 서지영 이갑재 이인웅 오송경 배부례
 이광섭 김수연 류건형 이주은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우순덕 문복순 최현선 정복순 유경민 주요한 한훈식
 권채영 왕성환 강순배 무명5

생일감사헌금:

송임희 정현주 박병구 이인웅 허준호 김 극

녹색꿈 헌금:

무명1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박성실	정두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이은옥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최종미	김진경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애순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이갑재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임영선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김명희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봉배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새교우 환영회** :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금년 상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있습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환경 동호회는 평택으로 감자를 캐러갑니다. 교회 마당에서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3. **남선교회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25일(목) 저녁 6시에 일신교회에서 있습니다.
4. **래프팅** : 5남선교회에서 27일(토) 한탄강으로 래프팅을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아침 9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5. **신앙실천** : 지난 6월 17일은 '사막화 방지의 날'이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물자를 아껴 쓰는 일이 사막화 방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다음 주 : 다메섹 속)

* 설거지 봉사 : 이현순 박시내 (다음 주 : 이준하 한상익)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